

종로학원 선배의 재수 성공 가이드

서울대 경영학과 권도현



강남종로문과에서 한 번의 실패와 한 번의 성공을 경험한 권도현입니다. 수험생분들에게 조언을 드리고자 이 글을 쓰게 됐습니다. 수기를 쓰기에 앞서 대학입시는 불공정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열심히 노력했다고 해서 모의고사 점수가 좋았다고 해서, 수능 성적이 잘 나왔다고 해서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합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인정하는 것이 성공적인 수험생활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재수 실패를 계기로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고집을 부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첫걸음을 내디딘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두 가지 원칙을 소개하려 합니다. 이 두 원칙은 세 번째 수험생활에서 제가 지킨 것들입니다.

1.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라

추상적이고 지키기 어려운 원칙입니다. 수험생을 괴롭게 하는 것은 심적 안정을 방해하는 것까지 변수입니다. 변수를 통제하는 것이 곧 자기관리입니다. 변수를 완전히 통제하기란 불가능하므로, 변수를 최소한으로 줄이고자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리듬은 이 글을 읽고 계실 여러분이라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리듬을 수능 당일까지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는 제 리듬을 유지하기 위해 수면시간부터 시작해서 교우관계, 여가, 체중까지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엃박자가 나면 컨디션은 저조해집니다. 엃박자를 낼 수 있는 변수를 확실히 쳐 낼 결단력을 갖춰야 합니다. 철저한 자기관리 속에서 결단력은 스스로 갖춰지게 됩니다.

2. 귀를 열어두되 뚜렷한 주관을 갖춰라

수험생이라면 당연히 따라야 할 원칙입니다. 제가 이 원칙을 되새기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수험생은 결과에 의해 평가됩니다. 성공한 수험생은 귀를 열어두었고 주관이 뚜렷했던 학생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실패한 수험생은 대체로 타인의 조언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주관에 빠졌던 학생으로 기억됩니다. 두 경우에 모두 해당해본 저에게 감히 이런 내용을 담아봅니다. 삼수 초기 실패한 수험생이었던 저는 이 두 번째 원칙을 세웠습니다. 귀를 열어두었고 주관이 뚜렷했던 성공한 수험생으로 남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현역, 재수 때의 제 노력이 폄하된다는 것이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성공해야겠다는 절실함이 생겼습니다. 힘들었고 어려웠던 세 번째 수험생활이었습니다만 견뎌냈습니다. 목표했고 원했던 학교, 학과에 합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성공한 수험생이 되었습니다. 이 두 번째 원칙을 통해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를 열어두되 뚜렷한 주관을 갖추라는 원칙을 본인의 수험생활 원칙이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게끔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목표를 향한 열망과 절실함을 철저한 자기관리가 뒷받침해준다면 성공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원칙 외에도 수험생활을 견디는 데 중요한 것들은 많습니다. 선생님들과의 조화, 원만한 교우관계와 부모님과의 소통이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들에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에 맞게 융통성 있는 답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 수기를 읽고 계신 여러분이라면 어느 정도의 절실함과 타인의 조언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소신을 잃지 않고 발전시키는 데 제 수기가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읽으신 여러분의 대입 성공을 기원하며 수기를 마칩니다.